

## 세계의 섬유 소비동향 및 전망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섬유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8 %였다. 2000년에 5,760만 톤이었던 세계 섬유 공급량은 2010년에 8,08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3.4 %에 해당되며, 68억 5,000만명인 세계 인구가 1인당 평균 11.8 kg의 섬유를 소비한 것이다.

이 중 합성섬유가 56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면 섬유와 셀룰로스계 섬유가 각각 31 %와 5 %를 차지하였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합성섬유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4.9 %였으며,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4.8 %로 다소 감소하였다. 세계 합성섬유 생산량 중 폴리에스터 필라멘트가 45 %를 차지하였으며,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 폴리아마이드 섬유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각각 30 %, 9 % 및 6 %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폴리에스터 필라멘트의 생산량이 크게 증대되었다.

2010년은 면섬유 가격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였다. 2010년 말 면섬유 가격은 파운드당 1.7 달러에 달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2011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면 섬유는 경작지 축소, 수질과 같은 환경문제, 비료 및 살충제 비용, 생산량 증가의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유용성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스터 제조용 원료의 가격은 원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세에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폴리에스터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때로는 과장되기도 한다.

2010년 11.8 kg이었던 1인당 평균 섬유 소비량은 2030년에 18 kg으로 증가하여 세계적으로 6,8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섬유 소비량 증가율은 3.1 %로 예상된다. 항공기와 자동차산업 분야에서 섬유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고기능성 섬유에 대한 소비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제품의 사용은 인구 증가(2030년에 14억명 증가), 패션제품에 대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 활성화 될 것이다.

홈텍스타일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 한 카펫이 기존 홈텍스타일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2030년 천연섬유의 생산량은 4,800만 톤으로 추정되며, 시장 점유율은 약 32 %로 추정된다. 재생섬유의 생산량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50 % 이상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모의 생산량은 1989/1990년 수준인 200만 톤에 근접할 가능성은 있지만, 전략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합성섬유의 경우, 폴리에스터 필라멘트는 다른 경쟁 섬유에 비해 저가인 장점이 있으며, 성능이 향상되어 섬유제품, 산업 및 카펫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폴리에스터 스테이플 섬유 역시 다른 소재와의 혼성을 통해 평균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합성섬유는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체 소재로 사용될 것이다.

탄소섬유는 현재 풍력 에너지 분야 그리고 B787 및 A350 같은 항공기의 무게를 50 % 이상 줄일 수 있는 산업용 복합재료, 자동차 차체 경량화 소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발히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